■ 오세훈 "주민투표 실패시 시장직 사퇴" 정국 파장

與 내부 반발속 "총력 지원 계속하겠다"
野 "정치놀음 중단하라" 불참운동 가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실패하면 시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혀 정국에 파장이 일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4일 치러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제 시장직을 걸어 그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33.3%에 못 미쳐 투표가 무산되거나 개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모두 시장직을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주민투표에 시장직 연계를 선언한 것은 투표 승리를 위한 막판 승부수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국의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주민투표에서 승리하면 여권은 최근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복지이슈를 주도하면서 향후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민투표에서 패배해 오 시장이 중도하차할 경우 여권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큰 악재를 맞게 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수도 서울이라는 정치적 비중을 고려할 때 향후 총선과 대선구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이 이날 오 시장의 선택에 자중지란을 일으킨 것도 이 때문이다.

당 일각에서는 오 시장의 최종 결정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오 시장은 당과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출구전략'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오 시장의 '시장직 연계' 결정이 알려지자 예고했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홍 대표가 오 시장의 시장직 사퇴를 극구 만류해 왔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도 비친다. 홍 대표는 만류 과정에서 "시장직을 걸면 중앙당으로서는 더는 밀어줄 수 없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우여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만류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최선을 다해 서울시민과 함께 이기는 방법으로 가야 한다"며 "당의 총력 지원 기조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책투표에 시장의 거취 연계는 옳지 않다"면서도 "주민투표 승리를 위해 서울시당 중심으로 끝까지 매진하겠다"며 '입장 변화'가 없음을 밝혔다.

그러나 남경필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결정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거취에 대한 '당과 재논의'를 주장했다. 한 핵심 당직자도 "주민투표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오 시장이 급기야 당을 망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야권은 일제히 "투표율을 높이려는 정치놀음을 중단하라"며 주민투표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얼마 전 뜬금없는 대선 불출마 선언을 통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1단계 압박전술을 획책하더니, 오늘은 서울시장직을 갖고 2단계 협박작전을 펴고 있다"며 "오 시장의 행태는 시민들과 흥정하려는 무리배의 행태로서, 서울 시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너무 가볍게 본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아이들 밥그릇 빼앗기에 올인하는 오 시장의 거듭되는 패착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서울 시민에게 백배사죄하고 주민투표를 철회하고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盧 전 대통령 "日 탐사선 독도 오면 부숴라"

김병준 전 실장 증언

최근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민감한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부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은 최근 홈페이지에 '노 대통령의 '독도 연설', 김병준 실장의 증언'이란 제목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김병준 전 정책실장의 증언을 실었다.

김 전 실장은 "2006년 4월 독도 문제가 불거지자 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수호 의지를 밝혔다"며 "만약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당파(배로 밀어 깨뜨리는 것)하라고 지시했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해양경찰청도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보고를 했다고 김 전 실장은 덧붙였다.

그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통한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연설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대일외교 현안을 놓고 분명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며 "대통령이 직접 문구를 작성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대국민 담화가 나가자 한 여론조사기관은 94.6%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악의적인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강경대응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고 폄하했다"고 당시 반응을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1일 오전 극동지역 최대 수력 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하기 위해 아무르주 부레야역에 도착하고 있다. /러시아극동지역통신사포털아무르제공=연합뉴스

서해안고속도 목포~일로 통행료 부당징수

다음달 감사원 감사 받는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무안구간 통행료 부당징수 문제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전남도의회 정영덕(무안 2·민주) 의원은 21일 "주민 1200명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청구한 '목포요금소~일로IC간 통행료 부당징수' 문제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통과해 감사 대상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청구 취지를 통해 "지금껏 부당 징수된 통행료가 20억 원에 이른다"면서 "일로IC 이용 주민들의 편익 증진과 원활한 고속도로 진·출입을 위해 부당 징수된 돈으로 일로주유소 4거리에서 고속도로 입구 구간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감사원은 9월 중 감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은 "감사 결과 통행료 부당 징수가 확인될 경우 무안 일로IC를 이용하는 일로, 삼향, 청계 주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감사청구 제도는 공공기관이 사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했거나 부패가 발견된 경우, 국가시책 등의 개선이나 향상이 필요한 경우 20세 이상 국민 1000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김지을기자 dok2000@

"천일염 농약사용 흔적 없다"

신안군 "보도내용과 무관"
반품 등 피해 일파만파

전남도내 일부 천일염 생산지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신안군은 19일 "농약사용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적인 명품소금'으로 거듭나기 위한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하루 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주문 취소, 반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친환경 천일염 생산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저수지에서 침전(1~2일)시켜 1~2차 증발지(10일)를 거쳐 결정지(1~3일)에서 생산돼 이번 보도내용과는 사실상 관계가 거의 없다고 군은 설명했다.

군은 자체 현장점검 및 농약사용 실태조사 결과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전남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와 합동조사반을 편성,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언론에 보도된 3개 군지역 25개소를 방문해 염전 농약사용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조사대상 염전 중 농경지와 인접한 일부 배수로와 둑 근처에서 고사한 함초가 발견됐지만 농약살포로 죽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으며 조만간 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조완남기자 wncho@

李대통령은 울란바토르, 김정일은 울란우데

미국부통령도 몽골행
반경 500㎞ 동시체류

이번주 초 남과 북의 정상이 러시아와 몽골 접경지역 반경 500㎞ 이내에 동시 체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올라 23일까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 체류할 예정이다.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3일께 바이칼 호수 인근의 동부 시베리아 도시 울란우데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특별열차 편으로 이동 중이다.

주목할 대목은 이 대통령이 머무는 울란바토르와 김 위원장이 향하는 정상회담 예정지인 울란우데가 서로 반경 500㎞ 이내에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라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22일 5박6일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순방국인 울란바토르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바이든 부통령은 몽골 체류기간 이 대통령과 회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남북미러 지도자들이 같은 시공간에 머문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협력과 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

극동 최대 수력발전소
김정일 '부레이' 방문

러시아를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1일 오전 극동지역 최대 수력 발전소인 '부레이 발전소'를 방문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는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를 지나 이날 오전 9시30분(현지시각 10시30분) 아무르주 부레야역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부레야역에 약 5분간 체류하며 영접행사를 치른 뒤 특별열차가 싣고 온 전용 메르세데스 승용차에 탑승, 부레이 수력발전소로 이동했다.

/연합뉴스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직판1등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광주지점 OPEN 기념!
가격은 특가! 품질은 품격! 대!방!출!

자유투어 ONLY ★꿈의 휴양지★ 하와이 5일
아시아나 항공 취항기념 9/22~12/1
자유여행 699,000원~
실속여행 799,000원~
품격여행 999,000원~

Good! 찬스! ★무릉도원 바로그곳★ 장가계/천문산 4/5일
아시아나 항공 이용 10/26까지
실속여행 499,000원~
품격여행 649,000원~
포함사항 : 황룡동굴, 천문산, 발맛사지, 상강유람선(선내식), 2억보험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8/27~10/28출발(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79,000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29,000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8/22~10/27출발(월,수,목,토)]
상해,항주,소주 4일 379,000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679,000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19,000원~

광양훼리 큐슈 3박 4일 [8/28~12/21출발(일,수)]
8/28,31 9/4,7 99,000원
9/11 추석기간 199,000원
9/14,18,21 129,000원
9/25,28 149,000원
10/2~12/21 179,000원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8,9,10월 출발기준-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 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원~
서유럽4국(프,스,이,영) 8일 1,990,000원~
서유럽5국(융프라우) 10일 2,090,000원~
서유럽6국(융프라우) 12일 2,290,000원~
서,동유럽완전일주 15/16일 2,790,000원~
홈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원~
NO-TIP 동유럽 6국 9일 1,890,000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원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원~

예/약/상/담
광천점 350-6226 | 두암점 267-8587 | 상무점 652-2974 | 수완점 574-1300 | 조선대점 227-8255 | 진월점 382-5353 | 첨단점 233-2627 | 충장점 222-9796 | 하남점 954-9700

서울시 중구 다동 88번지 동아빌딩 5층,6층 ●서울시 중구청 등록 일반여행업 제39호 ●O.표요금변동있음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가입(기획여행 실시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1억원 여행자보험 ●1급이상호텔(일부상품제외) ●최소출발인원(10명이상/인솔자동행 :일부상품제외) ●전일정식사제공(기내식포함) ●교통편 : 항공/버스/기차/선박 ●여행불편처리센터 1588-8692 ●환율변동에 따라 요금변동 있음 ※여행일정변경 시 사전에 여행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가격포함 내역]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포함/유류할증료 불포함 (단, 자유여행상품은 미적용되며, 급격한 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금액 변동가능)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 : 상품 및 출발일에 따라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이 있을 수 있으며, 각국 비자비용 및 고객의 선택에 의한 안내원 봉사료는 선택경비 사항이며 기사/가이드팁은 권장사항임.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참조